

**과연 인류는 지구를 떠나 살 수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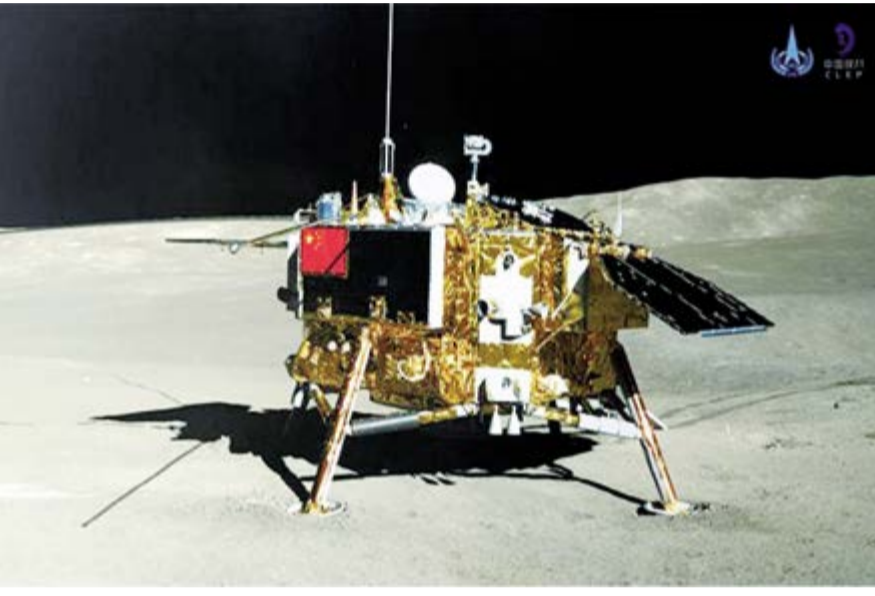
## 생물의 생존 필수조건은 인간

화성에 홀로 남겨진 우주비행사가 식물을 재배해서 살아남는 영화(마션) 이야기가 실제로 일어날 수 있을까?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난 3일 인류 최초로 달 뒤편에 착륙한 중국의 탐사선 '창어(嫦娥) 4호'가 달에서 식물을 키우는 실험에 착수한다고 15일 보도했다. 100일간 진행될 이 실험에서는 창어 4호가 달에 가져간 높이 18cm, 지름 16cm의 원통형 알루미늄 합금 용기에서 토마토와 샐러드용 샐러드 식물이 크레스(cress)가 재배된다. 이들 식물이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는 사이 용기에 함께 넣어진 누에 알은 부화를 거쳐 나방으로 성장하게 된다. 누에는 토마토와 크레스가 배출하는 산소를 소비하게 되며, 대신 이들 식물이 필요로 하는 이산화탄소와 거름으로 쓰일 배설물을 공급한다.

중국 우주개발을 총괄하는 중국국가항천국은 '달 표면의 마이크로 생태계 순환'이라고 이름 붙여진 이 과정을 영상으로 중계해 지구에서도 볼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이 실험이 성공한다면 지구가 아닌 다른 행성에서 식물을 재배하는 데 성공한 최초의 실험이 될 전망이다. 지난 2016년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국제우주정거장(ISS)에서 지니아(zinnia)의 꽃을 피우는 데 성공했지만, 아직 다른 행성에서 식물을 재배하지는 못했다. 만일 이것이 성공한다면 중국의 우주항공 기술이 상당히 진전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한다(연합뉴스 2019. 1.15.).

**화성 이주 계획**  
본지(本紙)는 2015. 4. 15.자(684호)에서 화성 이주 계획을 발표한 전자신문의 뉴스를 게재하였다. 관련 기사를



달에 착륙하여 식물재배 실험을 하고 있는 중국의 창어 4호(BBC에서 가져옴)

요약하면 이와 같다. 네덜란드의 마스원(MarsOne)이라는 기업이 2013. 1월 화성 이주 계획을 발표했고, 그 지원자가 20만 명이나 되었는데, 그 중 100명을 뽑았다는 것이다.

그후 마스원 프로젝트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찾아보니 미국에서 발행하는 인터네셔널 비즈니스 뉴스 2019. 1. 1.자 기사에 의하면 이 프로젝트에는 60억 달러가 드는데 현재 모금액이 불과 백만 달러밖에 안 되지만 마스원은 이 프로젝트를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한다(International Business Times 2019. 1. 1. 참조).

**우주개발 무모한 짓**  
NASA를 비롯한 우주개발에 관심이 있는 국가기관, 기업 및 사람들은 마치 제국주의 시절처럼 지구를 떠나 외계의 다른 행성을 점령하여 그곳에서 살 수 있는 꿈을 가지고 있으며, 곧 이러한 꿈이 실현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필자는 중국의 '식물 재배 실험'이나 '마스원 프로젝트'의 성공여부에 대해

서 언급할 지식을 갖추고 있지는 않다. 외계 행성에서 생존할 수 있는 기술적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다고 가정해보자. 즉 산소를 충분히 만들 수 있고, 식량을 재배하여 섭취할 수 있으며, 물도 마실 수 있다면 인류의 화성 이주는 이론적으로 가능할지도 모르겠다.

**생물의 생존 필수조건**  
그런데 이러한 의견에는 치명적인 결점이 있다. 우주항공학자들이 생물체의 생존 필수조건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모르고 있다는 점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생물의 생존 필수조건은 사람이 살고 있느냐 아니냐 여부라는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우주 계획을 수립 및 실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소 의아하게 생각될 것으로 여겨져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보겠다. - 물론 이 내용은 조희성님의 말씀에 의하여 기술된 것이다.

지구를 제외한 외계 행성에 생명체가 아직 존재한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다.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설명해보겠다.

이 세상에는 생명의 신(하나님)과 사망의 신(마귀)이 공존하고 있으며, 서로 투쟁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의 세상은 탄생과 소멸이 반복되고 있다.

한편 우주만물이 생성되기 전부터 전개되어 왔던 생명의 신과 사망의 신 간의 투쟁은 어떻게 되었을까? 태초에 사망의 신이 생명의 신을 이김으로써 우주만물이 탄생하는 결과를 낳았다. 다시 말하자면 우주만물은 생명의 신(하나님)이 사망의 신(마귀)에게 포로로 사로잡혀 있는 상태이다.

그런데 우주만물 중 사람은 다른 생물과 다르게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사람이 생명의 신(하나님)의 직계 자손이기 때문이다. 사람에게에는 하나님의 영이 근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사람으로부터 생명의 영이 방출된다. 사람으로부터 방출되는 빛을 오라(AURA)라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방출될 때 나오는 빛이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빛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바로 이 빛이 모든 생명체를 살게 하는 근본적인 힘이다. 다시 말하자면 풀과 나무와 물고기 등의 생명체는 홀로서는 살아갈 수 없다. 그들은 만물의 영장인 사람으로부터 방출되는 생명의 영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종속적인 존재이다.

**외계 행성에 생물이 없는 이유**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지구 이외에 다른 외계에 생명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 곳은 생명체가 살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술적 난관이 모두 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화성 이주 계획이나 식물을 재배하는 일이 성공하려면 사망의 기운을 상쇄할 수 정도의 다수의 인류가 이주해야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 입장에서 파장으로 왕래 가능하신 분

조희성님은 과학적으로 말하면 입자(육신)의 몸에서 파장(불명어리, 빛)의 몸으로 왕래가 가능하신 지구에서 유일한 분이십니다. 또한 분신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 분으로 눈앞에서 불명어리로 강론도 하신 적이 있고, 여러 권사님들을 동시다발적으로 눈이 오는 날 언덕 아래로 내려주시기도 하고, 청랑리에서 5분 만에 역곡에 오신 적도 있는 분이십니다. 가끔은 성도들 집에 분신이 따라서 오시기도 하고 나타나시기도 하십니다. 전도를 나가 조희성님이 구세주라

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상을 열어 인류를 구원해 줄 주인공에 대하여 모든 경전은 예언 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구세주를 알아보는 판단의 기준을 크게 분류하면 첫째, 육신이 말하지 않는 살아 영생할 수 있는 법에 대해 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경전은 이 영생과 인류를 구원해 줄 구세주에 대한 기록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자연재해를 막을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영생을 가능케 하는 물질로 종교마다 이름만 다를 뿐인 감로, 해인, 이슬성신, 만나를 내려야 합니다. 이 물

질은 빛이자 이슬로 우리의 죄를 정화하여 구세주 하나님으로 거듭나게 하는 진시황이 찾아 헤메이던 불로초입니다.

각 경전에 구세주의 출현장소, 출현하실 시기, 성함, 능력과 증표 등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승리제단에서 조희성님의 강론에 따라 수행하고 있는 성도들은 나라는 의식이 없어지고 하나님만이 주장하는 경지에 올라가기 위해 반대생활과 맞기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구세주가 오셔서 해 주시는 경지에 올라가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윤곡목사

### 금주의 말씀 요절

####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 (151) “변치 않고 계속해서 기울여야”

하나님께 기울이면 기울인 것보다 몇 백 배, 몇 천 배의 축복이 임하는 것이다. 돈이 마구 쏟아져서 감당을 못할 정도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단번에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다. 꾸준히 변치 않고 계속해서 희생을 하며 기울일 때 그렇게 되는 것이다.

구원을 얻고 얻지 못하고는 다른 데에 있는 것이 아니다.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사람은 곧 구원을 얻는 것이다.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의인이요, 하나님이고, 그 사람이 곧 영생을 얻는 것이다.

반면에 그 마음이 세상에 있는 자는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 마음이 세상에 속해 있는 자인가, 하늘에 속해 있는 자인가 하는 것에 그 차이가 있다. 한 순간에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다른 순간에는 세상을 생각하는 이른바 양다리를 걸치는 자는 지옥을 갈 사람이다.\*

#### 길가메쉬, 진시황, 그리고 알렉산더

길가메쉬나 알렉산더 대왕, 그리고 진시황이나 한무제 등 우리가 알고 있는 천하의 영웅 중의 영웅들의 이야기에는 불로초나 청춘의 샘(Fountain of Youth)을 찾는 내용이 들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불로초에 대한 최초의 언급은 역사의 아버지 헤로도투스라고 하는데 이는 인류의 첫조상으로부터 전승되어온 불로초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일지도 모른다. 이후 여러 나라의 신화나 문화 속에도 불로초와 청춘의 샘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 있는 것을 문학적 상상력의 결과로만 본다면 조금 경솔한 것이 아닌가 한다.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진시황도 불로초를 찾았다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다. 진시황은 항상 자신을 암살하려는 적들이 많다는 의심 속에서 평생을 살면서 부귀영화를 오래 누리



최소한 기원전 2000년 전에 쓰여진 것으로 추정되는 현존 인류 최초의 책인 길가메쉬 서사시(Epic of Gilgamesh)는 우루크 왕이자 영웅인 길가메쉬의 삶을 노래했다. 길가메쉬는 3분의 2는 신, 3분의 1은 인간인 초인(超人)이다. 이것은 그의 몸의 3분의 2가 신이고 나머지가 인간이라는 이야기는 아닐 것이다. 한마디로 길가메쉬는 사람 같으나 사람이 아닌 초능력을 가진 존재라는 표현일 것이다. 이 서사시에는 그의 영웅담이 전승되어 기록되어 있는데 학자들에 의하면 길가메쉬 왕에 대한 영웅담이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오면서 살아 불멸을 얻었다고 말한다.

아무튼 필자는 그의 이야기 중에서 절친의 죽음으로 받은 충격으로 죽지 않는 비밀을 찾아 나선 여정이 흥미가 끌린다. 마치 석가모니가 모든 인간이 죽는다는 것을 알고 그 죽음을 벗어나기 위해서 출가를 하는 것이 연상되는 이야기이다. 길가메쉬는 고생 끝에 영생의 비밀을 알고 있는 우트나피시뮴을 만나 우트나피시뮴의 부인에게서 불로초를 받지만 바로 그것을 먹지 않는다. 자신의 나라에 돌아와 모든 사람들과 불로초를 나누려고 하는 영웅다운 통치대 비(同體大悲)의 큰 생각을 하지만 잠든 사이에 그만 뱀에게 도둑을 맞아 결국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허무한 이야기이다. 이것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왜 인류 최초의 서사시에도 영생을 추구하는 이야기가 있으며, 이것이 주는 진정한 메시지는 무엇인가?



마케도니아의 영웅 알렉산더 대왕은 불과 20대에 페르시아 전쟁을 일으켜 지중해에서 인도에 이르는 광대한 제국을 건설한 영웅이다. 지중해의 작은 나라의 왕에서 대 제국을 건설한 그도 먹으면 영생할 수 있는 청춘의 샘을 찾았다고 하지만 결국 찾지 못하고, 갑작스런 병으로 33세에 죽고 만다.

길가메쉬, 진시황 그리고 알렉산더 말고도 불로초를 찾은 영웅들은 많이 있다. 또한 영웅은 아닐지라도 역사에 불로초를 찾았다는 기록을 남긴 이들도 많다. 중국 한나라의 무제, 조대 푸에토리코 총독인 폰세 데 레온(Ponce de Leon) 등.

사람은 왜 죽기 싫어할까? 왜 불로초를 추구할까? 이는 아마도 인류의 유전자에 영생의 경험이 기록되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닐까? 그래서 성경을 비롯한 경전과 신화에 생명 과일 또는 청춘의 샘물을 먹으면 영생한다고 기록된 것은 아닐까? \*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겨라

## 승리제단에서는 諸宗教(제종교) 경전에 예언되어 있는 三神一體一人(삼신일체일인) 출된 眞人(진인)의 증표인 甘露(감로)가 내립니다

삼신일체일인출      진인      감로

2018 승리절 경축행사에서 내린 이슬성신 (오른쪽 끝)      2018 승리절 경축행사에서 내린 이슬성신 (오른쪽 끝)      승리제단 홈페이지 [www.victor.or.kr](http://www.victor.or.kr)



이슬성신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호 14:5)이라 빛의 형상(요한복음 1장)으로 나타납니다. 영안이 열린 사람은 이슬성신을 볼 수 있지만 죄인의 눈에는 안 보입니다. 대신 죄가 없는 카메라 렌즈에는 찍히는 것이다.